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전'...은행·보험권 TF 회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모여...운영방식·결의요건 등 정해 내달 가동 최초 평가 사업장 규모 25~30%...내주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

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초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매물 대상들이 나올 수 있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신디케이트론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해야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중

은행권이 자금의 80%, 보험업권이 20%를 낼 것 같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내에서는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도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감감없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한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평가 대상이 연체나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이다 보니 '유'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국무교토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오월정신 새기겠다”...고병일 광주은행장 5·18 묘지 참배



지난 14일 고병일(앞줄 왼쪽) 광주은행장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4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 영령의 넋을 기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임

직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오월영령의 정신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다”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지역민과 상생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 재계서열 18계단 ↑

대기업집단 24개 늘어 88개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예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력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작년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

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예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산정공원 농협맨발길' 개장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지난 10일 광산구청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산정공원에서 '산정공원 농협맨발길'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정공원 농협 맨발길은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지난해 11월 광산구에 전달한 후원금(5000만원)으로 조성됐으며, 황토탕(140㎡)과 마사토길(길이 50

m), 운열벤치, 세족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상관 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개장식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황토탕과 마사토길을 맨발걸기를 체험했다. 농협은 맨발길이 최근 면역력 증가 및 혈액순환 개선 등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2대 국회 '지역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최우선 과제

광주전남 중소기업 209명 의견조사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개원한 제 22대 국회에서 즉시 다뤄야 할 지역 현안으로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가 광주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 21대 국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에서는 55%가 '못했다'라고 응답했고, '잘했다'는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제 21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아쉬운 부분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해소, 입법노력 등 관심 부족' (59.8%)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부족'과 '지역 현안의 해결보다는 중앙정치에 집중'이 각각 41.6%였다.

지역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 기대감은 '높다'가 50.3%, '낮다'는 19.6%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61.2%),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43.1%), '중

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 (38.8%),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2.5%) 순으로 응답율이 높았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47.4%), '지역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법 개정' (46.4%),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30% 이상) 법제화' (29.7%) 순으로 조사됐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겨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여수상의 상공인 간담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부정보 홍보를 통해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사진〉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양동구 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



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

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지역 기업 대표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에 대해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광주상의·인재육성아카데미

광주상공회의소와 (사)인재육성아카데미는 202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인재육성아카데미가 올 상반기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29기는 홍보마케팅마스터과정 28명, 스마트팩토리생산관리마스터과정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필요한 공통기초과정과 기업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직무교육을 4주(8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또 4주간 기업 담당자의 멘토링을 받으며 참여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 참여자의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스마트 자동화 공정 구축 방안 제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Balance 개선 방안 제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으로 연수생은 원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는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인원이어야 하며, 4인 내외로 구성된 팀에게 프로젝트 실행비 120만원, 수료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 기업체가 발급하는 수료증 수여와 참여수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6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인재육성아카데미 누리집(www.mdsarang.com)을 참고(062-224-7733)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